**I.**

역사란?? -- PPT**역사란** 슬라이드랑 같이 참고

(PPT중에 ‘역사’ 어원에 대한 복잡한 부분은 그냥 참고만)

E.H.Carr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1. **사건으로서의 역사(존재론적 의미)** : 객관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존재했는가?

2. **기록으로서의 역사(인식론적 의미)** : 객관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존재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 – 이 인식론적인 의미를 통상 우리는 역사의 의미로 이해한다.

사건 : 과거 일 자체!

사실 : 과거의 사실을 현재로 재현할 수 있음! (사건을 인지함 – 사실, 사건을 인지못함 – 사실x)

( 즉, 사건을 거짓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한 것. – But, 어쩔 수 없이 주관성이 들어갈 수 밖에!!)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하나 보자

신라시대 김부식 – ‘삼국사기’ 저술 ( 여기에는 단군 신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고려시대 일연 – ‘삼국유사’ 저술 ( 여기에는 단군 신화가 포함되어 있음 ) – 민족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 “아 우리는 단군의 뿌리로부터 난 민족이구나!”)

**하지만. 기록이라는 것에는 주관성이 충분히 개입될 수 있다**

Ex) 식민사관 –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기 위해 만든 사관

(‘임나일본부설’ 같은)… -- 일본의 야마토왜[大和倭]가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지역에 진출하여 백제·신라·가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日本府)라는 기관을 두어 6세기 중엽까지 직접 지배하였다는 설 – 즉 조선은 계속해서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예부터 그랬듯이!

또한 당시 기록은 지배계층의 생활상이 주로 나타나고 피지배 계층 생활상의 기록이 상당히 부족한 면도 있다.

기록은 결국 주관성을 피할 수 없다! 절대랑 객관성은 다른 것!

So, 역사책 속에 기록된 역사는 절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성이 담긴 사실일 뿐

**그래서 역사가는 “객관적 자세”가 요구! (역사가의 주관성과 객관성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는 태도)**

**II.**

여기서부터 **‘역사와 사실**’ ppt 참고

**‘역사적 사실’**이란? : 역사가의 ‘사건’이 대한 재구성!!(주관성 어느 정도 개입)

: 역사 서술의 대상, 의미 있는 사실들에 보다 집중( 즉, 모든 사건들을 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다루지는 않음 )

**‘사료’**란? : 역사가가 역사를 기술하는데 필히 필요한 자료

1. 문헌 사료
2. 비문헌 사료

**문헌 사료**란? : 문헌으로 기록된 사료를 말한다!! – 객관성이 매우 높다.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관심 ex) 랑케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비문헌 사료란? : 어떠한 기록 없이 고고학적 자료로만 접근할 수 있는 시대 연구(선사시대 같은) – 다소 상상과 추론이 개입해 객간성이 떨어짐…

문헌사료의 종류에는

* **1차 사료**
* **2차 사료**

1차 사료란 ? 그 시대 사람이 당시 그 시대를 기록한 사료( ‘원사료’라고도 함)

Ex) 지금 문재인 정부 시대를 내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 것

2차 사료란 ? 그 이후 사람이 기록한 사료

Ex) 문재인 정부 시대를 내 증손자가 작성하고 있는 것

사료를 그대로 사실로 간주할 수는 없는 법! 신빙성을 검증해야 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사료 비평**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사료 비평의 종류에는

1. **외적 비평**( = 문헌 비평 )
2. **내적 비평**( = 문학 비평, 내용 비평)

외적비평은

: 사료가 원본이냐, 사본이냐?

: 저자가 누구냐?

: 언제 어디서 기록했느냐?

이런 걸 따짐 즉, 문헌 자체의 신빙성을 검토

내적 비평은

: 문자적인 해석… ‘의도가 뭐지’?

: 당시의 기록이 정말 그러했는가??

등등 내용적인 부분을 비평

사료 비평은 정확히

: **문헌사료의 사본간의 오류가 크기에 어떠한 사료를 채택할지를 선택하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여기서부터는 ‘**역사적 설명과 서술**’ PPT 슬라이드 참고

그런데 PPT가 교수님이 설명 안 한 부분이 많아서 거기는 따로 공부를 해야할 듯…

내가 필기한 거랑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둘 다 공부 ㄱ ㄱ

여러 가지 역사가들에 따른 ‘역사관’들이 있다!

* **역사의 동인에 따른 분류**

즉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에 따른 여러 역사관들이 있다.

* **역사 변화의 양상에 따른 분류**

역사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에 따른 여러 역사관들이 있다.

역사의 동인에 따른 분류에는

헤겔의 관념론과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있다!!

**Hegel’s 관념론**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 정신이 갖고 있는 지향성으로 향해 가는 것.’

(즉, 절대적 정신이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해 가고 있다고 역사의 흐름을 간주)

Ex)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인류 구속과 재림의 역사도 관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헤겔의 관념론은 발전론을 기반으로 한다.

헤겔은 그 절대적 정신을 Der Geist(The spirit)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절대 정신의 본질은 무엇일까**…”자유”**이다!!

**이 자유가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구현되는 지가 역사의 발전이라고 설명!**

Hegel 曰

“왕은 지 멋대로 행동해도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므로 동양의 역사는 ‘자유’의 역사가 없었다.”

“그리스에서 자유의 역사가 생겨났다”

“그리고 게르만 사회에서 완전한 자유가 발현되었다” (헤겔이 독일인이라 이런 개소리 펼침)

하지만 정말 개소리다.

그리스 역시 비자유인 같은 구속이 있었기에 완전한 자유 사회는 아니다.

**Karl Marx’s 유물론**

역사를 움직이는 동인은 **‘물질의 생산’**

절대적 존재 따위는 없다!!

유물론의 네이버 정의

: 물질을 제1차적·근본적인 실재로 생각하고, 마음이나 정신을 부차적·파생적인 것으로 보는 철학설

역사 변화의 양상에 따른 분류

순환론, 직선적 발전론, 정체론, 토인비의 나선적 순환론, 슈펭글러의 유기체론이 있다!!

**순환론**

: 동아시아의 전통적 역사관

: 우주적 질서를 순환과 반복으로 간주 ( 음양오행설 )

: 단대사적 역사서술 ( 왕조의 순환 )

왕조 창건 – 제도 확립 – 절정기(태평성대) – 쇠퇴기(제도 파괴, 관료 부패, 빈부격차, 왕권 약화) – 멸망

: 왕조로 역사를 구분 ( 삼국시대, 고려시대, 남북국시대, 조선 시대 등)

**직선적 발전론**

: 계몽주의적 보편사적 관점, 인류 역사의 보편적 진보에 대한 믿음

( 인류는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한다! )

: 서양사 중심의 3시기 구분법 ( 고대 – 중세 – 근대 )

* 유물론적 발전론

: 고대 노예제(사회적 성격) – 중세 봉건제(정치적 성격) – 근대 자본주의(경제적 성격) – 공산사회가 마지막 최종 단계다!!

: 역사를 생산관계에 따른 계급투쟁으로 간주

* 헤겔의 관념론적 발전론

: “자유”의 확대!!(시대가 흐름에 따라)

: 동양의 전제군주제..? 미개한 것들.. 식민 지배의 정당성 부여!

**정체론**

: 근대 서양인들의 동양사관 ( Orientalism )!! – 서양인들이 동양을 바라보는 관점

‘동양사관’에 대한 Detail

* 동양은 전제군주 사회(왕의 절대적 권한) ex) 중국 황제, 이집트 파라오
* 관료제 존재 : 직업적 전문관료 ( 어렸을 때부터 예비 관료로 교육) – 서양과의 차이
* 이런 정치체제를 가지게 된 배경

: 큰 강에서 형성된 ‘수리문화’

: 노동력을 통치하기 위한 강한 권력 필요

* 동양은 고대 문명의 정점에 달한 이후 수천 년에 걸쳐 질적 변화가 없었다.
* 한 나라때 이르러 중국의 고전 문화가 완성

(유교, 관료제와 관료주의, 황제통치체제, 한자, 중화사상)

* 식민 사관의 종류 중 하나(동양은 서양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토인비의 **발전론적 순환론(나선적 순환론)**

: 역사 발전의 기재를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 헤겔의 정반합적 사고에 기반

: 도전과 응전의 반복 속에 일정의 진보를 겪음

슈펭글러의 **유기체론**

: 문화를 하나의 유기체로, 생명체로 인식

: 탄생,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사망

: 중국의 역사는 한나라 이후 생명이 없는 화석의 상태로 외적 영향에 의한 변화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 – 정체론과 일맥상통

일본의 X같은 식민사관 :

1. 타율성론 ; 한국사가 주체적으로 흘러가지 x

근거 : 지정(지리,정치)학적 요인 ( 한반도 – 대륙의 강력한 세력 or 해안의 강력한 세력 안에 껴 주체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어려움? ) – 이 요인이 민족성에 영향이 있다고 일본인들이 주장 뭔 억지냐..

반례 ) 고대 로마 – 반도 국가인데 대륙으로 진출한 case

1. 당파성 ( 분파성 – 조선의 사색당파 싸움 포커스 )

; 조선 사회는 맨날 파를 나누어 싸운다. (붕당 정치)

1. 정체성론 ( 일본의 무사통치기간 – 서양의 봉건제와 동일시, 일본 曰 정체성론의 보편적인 발전에 따름 일본은 )

; 한국은 반대로 진화하지 못한 사회 – 일본의 지배를 받아라

1. 사대주의 ( 타율성론과 유사 ) – 중국에 의존

외교상 사대 정책을 채택한 거랑 사대주의랑은 엄연히 다르다!

(ex) 광해의 중립외교

**IV.**

여기서부터는 ‘**역사의식’** ppt 슬라이드 참고

역사 인식 :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지, 정확성 여부가 중요

역사 의식 : 자신의 느낌, 판단, 주관적 반응이 포함

역사 인식은 맞다, 틀리다 판가름 가능 ( ex) 우리나라는 1945년에 광복을 맞이했다 )

역사 의식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 ex)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 )

역사를 의식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민족적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더 중요!

따라서 : **역사의식 = 역사인식 + 개인(혹은 집단)주체적 반응**

“역사의식은 현세의 정치적, 국제적 입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

**V.**

여기는 무조건 나오니 빡공하자 얘들아

한국의 근대시대는 언제부터 시작일까??

보통의 경우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본다. 근대 문물의 유입의 시작이라서!!

전근대에서 근대로 변화하는 흐름은 대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일부는 열강들의 침입의 배경이 되었기에(서구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니들이 간섭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자주적으로 근대로의 발전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

라는 주장을 펼칠 수만 있다면 ‘개방근대론’에 맞받아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맹아론**이다!!

“우리한테 자본주의의 싹이 있었다” – 그런데 막 서구새키들이 간섭하고 ㅈㄹ

정의 : (네이버 정의 참고)

역사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로 이행하려는 맹아가 싹트고 있었다고 보는 관점. 일제의 정체성론에 맞서, 조선 후기에 농업ㆍ수공업ㆍ상업ㆍ광업 따위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자본주의의 삭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심적인 시기가 17~18세기!!!

17~18세기는 확실히 시대가 변하는 흐름을 보인다!!

자본주의 맹아론의 근거

1. **농촌 경제 구조의 변화**

* 농업 기술의 향상

1. 모내기와 광작, 이모작 등장.
2. 새로운 파종법 – ‘견종법’ – 고랑에 보리씨
3. 그래서 후에 수리 발달 ( 물 공급 원활하게 하기 위해 ) – 제은사

* 지대 수취법 (지주 – 소작 관계)

1. 병작 – 소작이랑 비슷해. 단어만 다를 뿐
2. 화폐지대 – 돈을 사용해서 하는 경제 체계가 많이 발전

* 농업의 상업화 상품생산 – 본디 자급자족으로 생산한 것들, 상품용으로 생산하기 시작.

1. 유통 : 곡물, 담배, 면화, 인삼
2.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

* 공인 : 공인은 관수품 조달 특권상, 방납상인(대신 공납 납부해주는 애들) 얘네가 브로커역할을 하면서 많이 삥땅 뜯음,이에 대응하여 대동법 시행(in 광해군) – 쌀로 세금을 낸다. 땅 없은 애들은 내지 말고, 땅 많은 애들이 많이 내. 방납애들은 대신 정부가 돈을 주고 특산물을 삼. 큰 상업 자본이 발달.

Cf) 조선의 세금 징수 분야 : 지세, 요역, 공납

지세 : 토지에 물리는 세금

요역 :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취하는 제도

공납 :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내는 제도

* 시전 상업의 변화

: 금난전권 ( 난전의 개입을 막고자 시전상인에게 허락된 권리)

: 난전 (허가 없이 들어온 가게) – 이 모두가 다 시장이 많이 발전했음을 보여줌

: 통공정책의 실시 – 신해통공(금난전권 폐지), 채재공 등

어쨌든 이런 게 다 시장경제를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

* 도시와 시장의 발전 :

: 농민의 분해 – 상업화, 수공업 발달

: 정치적 도시에서 상업적 도시 성격으로 바꿈

: 각 지역 정기시 및 상설 시장의 설립 ex) 5일장

* 사상도고 : 경강상인, 개상상인
* 금속화폐의 유통 – 상평통보

1. **실학의 발달**

초기 실학자 – 정약용, 유형원, 이익 – 농업의 발전에 포커싱을 둠

균전제, 한전제(토지 사유제 부정), 여전제(한 집단이 토지를 공동소유) 등 주장

이러한 주장들은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정말 많이 변한 상태서 원시 사회를 띄는 농업의 발전에 주력한 것은 한계로 볼 수 있다.

후기 실학자 – 북학파를 추종(북학파란? – 대외 무역중시,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가져와 배우자!) – 초기 실학자보다 더 개혁적인 성격을 띔

이들은 또한 상업과 수공업을 발전시킬 것을 주장!! – 호란 이후 북학을 수용

관리수용제나 신분제 등에도 여러 안건들을 제시

1. **대중문화의 확산**

: 한글 소설의 대중화!! – 계층별로 다 볼 수 있는 한글 소설이 대중화

Ex) 홍길동전, 심청전 등

: 중인이나 양반 계층이 주로 소설 작성, 양반의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도 많음

: 미술분야도 많이 변화

기존 관념산수화에서 진경산수화(진짜 풍경을 그리는 풍토)

풍속화도 많이 발달 – ex)신윤복, 김홍도 등

사상적으로 서양으로 들어온 ‘천주교’!!

‘서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으로 유입 – 후에 동학과 대립

서학을 주로 차용한 양반들 – 당시 세력싸움에 밀려난 남인 세력

서학에 대한 관점

1. 성리학 관점으로 비판 ex) 이익
2. 신앙으로 수용 ex) 정약용, 이승훈

**VI**

개항과 그 이후 근대사!!

**‘개항과 근대적 변혁운동**’, ‘**개화운동의 전개와 의의**’, ‘**갑오동학혁명**’ PPT 슬라이드 참고 공부

전반적인 흐름

(( 영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진 아편 전쟁 )) -- 1842

배경 : 영국이 동인도회사를 통해 중국에게도 아편(마약)을 팔기를 원함. 아편이 중국에 만행하면서 중국에 있는 은이 전부 영국으로 유출.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이 아편 수입 금지 조치.

영국의 반발 – 전쟁!!

구체적인 과정은 중국의 ‘임칙서’라는 사람이 아편을 몰수!! 영국의 ‘엘리어트’가 군사를 파견

영국의 강력한 군사력 아래 청나라는 힘없이 무너짐.

‘난징 조약’ – 불평등 조약, 포함 외교

서구 열강이 처음으로 동아시아사에 개입한 사건!

(( 일본은 미국과 맺은 미일수호통상 조약 – 1858 )) 이후

메이지유신(1868)을 통해 근대화 이륙

이후 정한론(한국을 정복하자 여론 만연) – 운요호 사건(1875)을 터트려 강화도 조약(1876)을 맺음

조선의 흐름

1866 –(미국) : 제너럴 셔먼호 사건 – 박규수가 당시 평안도 관찰사

제너럴 셔먼호 사건 : 미국이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자 조선의 반발 – 전쟁 발발

조선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미국 퇴각.

1868 병인양요 (프랑스)

1871 신미양요 (미국) – 제너럴 셔먼호에 의한 보복으로 전쟁 발발 – 흥선대원군의 척화 굳건히

이 시기에 조선은 흥선대원군에 의한 섭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1875 – (일본 ) : 운요호 사건 –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통상 요구

이로 인한 ‘강화도 조욕’(조일 수호 조규 체결)

강화도 조약의 약관

1관 : 조선국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의도 : 조선은 기존에 중국과 밀접한 관계… 청의 종주권 부인)

5관 :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가운데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 지명을 지정한다 ( 부산 원산 인천 )

7관 : 일본국 항해자가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는 것을 허락하여 위치와 깊이를 재고 지도를 제작하여…(거주허용)

10관 : 일본군 인민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 조선국과 교섭하여 인민은 모두 일본국의 심리 판결로 돌리고 각각 그 나라의 법률에 근거하여 신문하고 판결하며…(치외법권, 영사재판권)

이거 수정본으로는 조일수호조규부록 – 일본 화폐, 무관세, 거류지 설정, 무제한 쌀 유출 등 추가

우리나라의 개화 운동의 흐름

초기 박규수 – 제너럴 셔먼호 평양감사

: 이전에 베이징을 가던 중 영불 연합군에 베이징이 함락된 것을 목도… 우리나라의 개화 필요성 주장

대원군 하야 이후 고종의 신임을 받아 우의정까지… 이를 비롯한 오경석과 유홍기도!

유홍기(유대치)—한의사..의 경우 – 훗날 갑신정변의 주역(김옥균, 박영효 등)들을 자제로 들여, 공부시킴…

박규수 – 온건 개화

오경석, 유홍기(중인들) – 급진 개화

개방(1876)이후 개화 운동의 흐름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화 실시

통리기무아문 설치(1880)

군제 개편( 5군영을 2군영으로 축소)

별기군의 신설 – 구식군인의 불만 – 임오군란의 원인

해외시찰단 파견 – 신사유람단, 조사시찰단, 1.2차 수신사, 영선사, 보빙사 등

하지만 구식군인의 차별로 인한 구식군인 폭발 – 임오군란(1882)

선혜청의 당사 민겸호 습격! 청의 진압 – 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됨

이후 청이랑 조약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일본도 ‘제물포조약’

임오군란이후 개화파들의 분화 – 개화추진의 방법과, 청이나 일본과의 관계부분에서 의견 대립

1. 시무파(온건 개혁파) – 천천히 개혁하자

: 동도서기론 주장 – 우리의 법을 따르고 서양의 기술만 차용하자

: 청과의 사대관계 유지

: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

1. 변법파(급진 개화파) – 서양의 기술과 제도 등 다 수용

: 일본의 메에지유신을 모델

: 청에 대한 사대외교 청산

민씨 세력(흥선대원군 물러난 이후 고종이 정권을 잡았으나 실제로 그 와이프인 명성황후 측근들이 권력을 장악 – 성이 민씨임)은 주로 온건 개화였지만 급진개화세력은 이에 대립

청이 프랑스와의 전쟁을 틈타 군사력을 빼낸 사이 일본과 손을 잡고 급진 개화파들이 정변을 주도

‘갑신정변’(1884) – 김옥균, 서광범, 박영효, 서재필 등등

정변을 수립 후 정령 14개조 발표 – 자세한 내용은 PPT읽어봐!

하지만 이에 청이 와서 진압. 청과 일의 내정간섭심화

이후 한성조약과 톈진조약 체결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도 집중적으로!

하지만 애초에 이런 개화 자체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다

서양을 어떻게 대하자? 배척하자!

위정척사운동

초기 : ‘통상 반대 운동’(1860년대) : 척사론!! (이항로, 기정진) 대원군의 수용

둘째 : ‘개항 반대 운동’(1870년대) : 왜양일체론 ( 최익현 )

하지만 강화도 조약 이후, 정부는 수신사를 만들어 일본에 파견.(김홍집 파견)

: 황쭌시엔 만남 – ‘조선책략’이라는 책 받음, 정관응 만남 ‘이언’이라는 책도 받음 조선책략의 내용 – 일본 중국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 러시아의 진출 대비, 기술만이 아니라 제도도 도용하자 (양무운동 같은 거면 안되) – 본격적으로 이러한 movement가 성행

셋째 : ‘위정척사운동’ – 영남만인소 ( 유생들이 와서 궁궐 앞에 엎드려 호소하는 것)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화 단행

갑신정변 이후 10년뒤에 동학농민운동(갑오동학혁명)이 발생!

: 농민들의 수탈이 심해지고 반일 감정 고조.. 반외세, 반봉건 주장!

: 억울하게 죽은 동학의 최제우 교조의 한을 풀어달라는 여러 신원운동을 벌임 (교조신원운동)

: 동학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세력과 농민들이 단합해서 세력 형성

: 공주 취회 – 삼례 취회 – 광화문 복소 – 보은 취회 등등 여러 운동을 벌이다

: 여전히 성행하는 횡포 속에서 결국 무력을 단행

: 고부 민란

: 무장 기포 등 사건 발생

: 황토현 전투 – 전라 감영군 격파

: 황룡촌 전투 – 전주 입성 ( 농민군이 정부군을 격파 – 전봉준 지도)

정부 자체와 맺은 전주 화약과 집강소 설치 – 폐정 개혁안 발표 (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듯 애초에 이 부분 설명도 안하심) – 흐름만 파악

하지만 일본의 경복궁점령과 여전한 내정간섭 – 2차 동학농민운동발발

우금치 전투 – 일본의 연합군에 의한 패배…

갑오개혁!!

이루어진 배경에는 : 정부 자체의 움직임, 일본의 강요, 동학농민군의 요구!

: 군국기무처 설치

: 여러가지 정치적 개혁이 이루어짐 – 자세한 건 PPT